

김제국도대체도로 9년째 45.4% 공정

(홍사~연정)

보상지연으로 예산반납 연례행사... 미뤄진 준공계획 2020년 넘기면 '최대 낙장사업' 우려

익산국도청이 시행 중인 '홍사~연정' 간 김제시 관내 국도대체도로가 당초 2016년 준공계획을 2020년 준공으로 미루고도 착공 9년째인 현재까지 공정을 45.4%의 극히 저조한 실적으로 보여 최대 '낙장사업' 현상이 될까 우려된다.

이는 국토청 보상구간인 '면' 지역은 보상이 2011년 완료됐으나 김제시 보상구간인 '동' 지역은 김제시 예산부족으로 착공 9년째인 올 연말까지 총 보상액 191억의 94%인 180억 밖에 안 되어 적은 시공예산도 소화하지 못하고 '예산반납'이 연례행사가 됐기 때문이다.

익산국도청은 총 1367억여원을 들여 김제시 연정동 소산~홍사동 관내대

삼거리까지 국도 23호선 10.3km에 노폭 20m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김제시 관내 국도대체도로'를 2009년 착공해 2016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착공 9년째인 올해 예산 144억9100만원을 합해도 올해까지 전체 예산은 총예산 1367억여원의 56.8%인 776억여원에 그치고 공정률도 현재까지 45.4%에 불과해 지난해 준공계획은 2020년으로 일찌감치 미뤄졌고 이것도 지켜질지 의문이다.

이런 이유는 '도로법'에 의해 익산국도청 보상구간인 '면' 지역은 2011년 보상이 완료됐으나, 김제시 보상구간인 '동' 지역은 김제시 예산부족으로 전체 보상액 191억원 중 올해

확보한 38억원으로 착공 9년째인 연말까지 보상을 추진해도 94.2%에 그치고 잔여예산만 11억이다.

이 때문에 SK건설 등 시공사 현장 인력 임금과 현장사무소 관리비만 연간 15억원 안팎에 달하는데 공사기간 장기화로 시공사 부담증가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극히 적은 시공예산도 소화하지 못해 2012년 69억원, 2013년 68억원, 2014년 20억원에 달하는 등 '예산반납이 연례행사'였다.

특히 그간 토지주 집단민원은 물론 보상지연 등으로 홍사교차로 J제 문중소유 토지 등이 아직까지 미보상 잔여용지로 남아 있고 착공 9년째인 현재 전체공정률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4%여서 2020년 준공도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는 관측도 대두된다.

김제시민들은 "익산국도청 도로개설이 착공 9년째에도 보상을 끝내지 못하고 예산반납이 연례행사였다는 것으로 최대 낙장사업 현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돼 한심하다"며 "전국적 현상인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동' 지역 보상이 지연되면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서라도 국토부가 보상하는 방향 전환이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현행 도로법에는 '국도' 부지 보상비는 '읍·면' 지역은 국가가, '동' 지역은 해당 시군에서 부담토록 규정돼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보상비 부담으로 골머리를 앓는 등 전국적인 현상이나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군산시 보건소는 지난 5월 29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관내 응급실 운영 2개 의료기관(군산의료원, 동군산병원)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소의 온열질환 감시체계는 온열질환자의 발생현황을 매일 파악하여 폭염에 따른 실시간 건강피해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온열질환에 대한 예방수칙을 안내함으로써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응급 의료기관을 통해 감시체계를 운영해 온 결과 온열질환자는 지난해 20명(열사병 3명, 열탈진 8명, 열경련 5명, 열실신 2명, 기타 온열질환 2명)이었으며, 군산시 거주자 14명, 타지역 거주자 6명으로 보고된 바 있다. /군산=김판관 기자

군산시, 녹지공간 가뭄피해 최소화 총력

군산시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관내 녹지공간에 식재된 수목들의 잎이 누렇게 변하거나 가지가 말라 죽는 등의 고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업장별 시행업체와 공조하여 가뭄피해 최소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시 전역에는 은행나무, 왕벚나무, 메타세쿼이아, 이팝나무, 무궁화 등 23종 4만여 주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관내에는 집단 고사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시에서는 최근 1~2년 사이에 식재되어 뿌리를 온전히 내리지 않은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지 48개 사업장 약 10

만여 본에 대한 관수작업을 각 시행업체에 독려하고 있다.

또 지난 7일부터 살수차(2000L) 3대를 동원해 주요 도로변 대형화분 800여개, 교통섬, 가로등화분 등에 대한 관수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수가 어려운 조종로, 강변로 등 주요도로변 중앙분리대수목 5개 노선을 대상으로 물주머니 600개를 설치해 가뭄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 시에서는 가뭄과 고온으로 각종 병해충이 확산될 것을 우려, 병해충에 의한 나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 방제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군산=장 현 기자



군산시는 지난 7일부터 살수차 3대를 동원해 주요 도로변 교통섬 등에 대한 관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익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익산시는 2016년 하반기(7월~12월)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고 지난 22일 전했다.

이번에 인센티브 제공받는 대상세대는 익산시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 33,000여 세대 중 5,937세대로 이들 세대에는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총 7,400여 만원이 지급된다. 인센티브는 탄소포인트 가입당시 신청한 지급방법에 맞게 다음주 지급된다.

이들 세대는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이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사용량 보다 매월 평균 5% 이상 감축해 이번 인센티브 수혜자가 됐다. /익산=장영원 기자

익산시와 투자협약... 익산체인 30명·fs글로벌 15명 고용창출 기대

귀금속의 도시 익산시의 제3산단 패션단지 2개의 유망 기업이 새동지를 틀게 됐다.

익산시는 (주)익산체인, (주)fs글로벌과 익산 제3산단패션단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날 오후 익산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 구자원 (주)익산체인 대표, 이창준 (주)fs글로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익산체인은 남산면 구평리 1519번지 1만653㎡ 부지에 20억원, (주)fs글로벌은 남산면 구평리 1546번지 5만 379.9㎡ 부지에 15억원을 투자할 계획

이다. 이들 2개 기업은 올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패션단지 공장을 건축할 예정이며, 2018년 정상 가동될 경우 익산체인 약 30여명, fs글로벌 약 15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주)익산체인은 30년 넘는 주얼리 가공기술을 바탕으로 반지, 팔찌, 목걸이 등 패션 주얼리 제품을 서울지역 등에 전량 납품하고 있다. 특히, 구자원 대표는 익산시 투자유치지원관으로 활동하며 기업의 실제파이가 어려워 인적지원 활용이 요구되는 주얼리 산업의 특수성을 보완해 2012년도부터 중국진출 주얼리 기업 유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주)fs글로벌은 의류 및 의류 부자재를 취급하는 기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물 없는 염색공을 시도해, 이를 바탕으로 중국, 일본 등으로 수출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투자를 결정해 준 두 기업에 감사드리며, 익산 제3산단 입주를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입주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나익균 군산대 총장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초대 이사장 선임

군산대학교 나익균 총장이 21일 JW메리어트동대문스퀘어서울에서 개최된 (재)건설기계부품연구원 15차 이사회 및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창립총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재)건설기계부품연구원은 2014년 3월 국내 유일의 건설기계부품 전문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고, 그동안 시험·평가·장비 및 공정기술 개발, 전문기술정보 제공 등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전문연구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 여러 한계가 있었고, 전문

생산기술연구소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기존 법인을 해산하고 기업 지원에 가장 적합한 법인 형태인 전문생산기술 연구소로 재창립하게 된 것이다.

새롭게 창립된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은 건설기계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친환경 건설기계 기술개발 등을 통해 국내 건설기계 산업을 진흥시키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익균 총장은 내년 2월까지 초대 이사장직을 맡아 국내 건설기계산업 육성에 기여하게 된다. /군산=장현기자

전북서부보훈지청, 보훈가족 위안잔치

전북서부보훈지청은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안잔치를 지난 21일 오전 11시경 보훈단체장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 기쁨의 교회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에게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함이다.

위안잔치는 전북서부보훈지청이 주최하고 원광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도진)이 주관했으며 익산시립예술단,

(주)이마트 익산점, 기쁨의 교회가 후원했다.

이날 행사는 이우실 지청장의 축사, 익산시 유장숙 복지청소년과장의 익산시립예술단의 부채춤, 장구놀이, 단방 화춤, 풍물놀이 등의 수준 높은 공연으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였으며, E마트 익산점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과 간식을, 전북서부보훈지청에서 마련한 기념품을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농기센터,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무허가 축사 제로화'를 위해 현장에서 바로 뛰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목을 받고 있다.

고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난 21일 대한한돈협회 군산시지부 월례회에 참석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어려움을 청취하고 고민을 공유했으며 월례회 종료 후에는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

했다.

대한한돈협회 군산시지부는 돼지를 키우는 22농가가 모여 만든 대한한돈협회 산하단체로 매월 월례회를 통해 구제역 예방교육, 선진사례학습, 공통문제점 토론 등을 실시하여 군산시 자생 축종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김현섭은 지부장은 "행정의 도움으로 힘겨운 시간을 이겨냈으며, 행정과 합심하여 무허가 적법화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장 현 기자

대한민국홍삼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Korea Jinan Hongsam

www.jinansam.com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063-433-8398